

2018-19 인터랙트 지구대회 개최

District 3650
Interact
Rotary Sponsored Club

10월 27일 한성(마포고) 인터랙트클럽 주관, 350여명 참가
로타리안과 함께 하는 진로 멘토링, 젊은 연사와 인터랙터들의 공연으로
신세대 행사의 새로운 변화 시도



2018-19년도 인터랙트 지구대회가 우리 지구 11개 인터랙트클럽 회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27일 마포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장세호 총재를 비롯하여 박수부 차기총재, 경희수 인터랙트위원장, 황순신 3지역대표, 김종 사무총장, 서창우 연수위원장, 이정수 모자보건위원장 등 지구위원과 한성, 서울남산, 서울화산 로리클럽 회장 및 총무, 인터랙트위원장 등 30여명의 로타리안들이 함께 참석하여 인터랙트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번 인터랙트 지구대회는 한성(마포고) 인터랙트클럽(후원클럽 한성RC, 엄재중 교장선생님, 지도교사 진형필)이 주관했으며, 스폰서클럽인 한성 로타리클럽(회장 김무일)에서 30만원의 성금을 기부하는 등 인터랙트 스폰서클럽들의 협찬과 후원을 통해 진행됐다.

특히 인터랙트 지구대회 사상 최초로 로타리안과 함께 하는 진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많은 인터랙터들의 호응을 얻었다.

또한 강연 프로그램으로 장세호 총재가 “행복한 로타리 활동”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펼쳤고, 자

존감 연사이자 래퍼인 배게씨(본명 최승은)가 초청되어 청소년들의 자존감을 상승시키는 강연을 랩을 곁들인 퍼포먼스 형태로 펼쳐 새로운 반응을 얻었다.

이밖에도 참가클럽 소개, 인터랙트 단원 표창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랙트 우정의 마당을 통해 마포고 보컬밴드 '제네시스'와 댄스동아리 'DNA'의 공연, 그리고 건대부고 인터랙트 김미림 회원의 보컬공연이 이어지며 행사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번 지구대회에 참가한 인터랙트 회원들은 서창우 지구연수위원장님이 대표로 있는 (주)한국파파존스 피자에서 참가자 전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350인분 이상의 피자도 풍성한 저녁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성RC의 후원으로 로타리 기념볼펜을 모든 참가자들에게 나눠주어 소속감을 높였다. 한성로타리클럽 외에도 인터랙트를 스폰서하는 10여개 클럽에서 성금을 후원하여 더욱 풍성한 지구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희망과 봉사’를 노래하는 물푸레합창단 리틀렉트클럽

11월 2일 서울시 김장문화제 개회식 공연, 11월 3일 정기연주회,
11월 5일 사랑의 향기 자선음악회 공연 참가 등으로 활발한 활동 펼쳐



물푸레합창단 리틀렉트클럽(단장 경희수, 후원 서울문화RC)은 지난 11월 3일(토) 나루아트대강당에서 2018년도 물푸레합창단 리틀렉트 정기연주회 “희망~~, 대한민국”이 600여석의 자리를 꽉 메운 채 성황리에 개최됐다.

첫 순서의 난타퍼포먼스의 열정적인 무대를 시작으로 연주반(초등 4~6학년)이 “나는 나비”등 3곡을 연주하였고 교육반(초등 2,3학년)이 “마음과 마음이 외 2곡을, 새싹반(7세,초등1학년)이 “파란 마음 하얀 마음”외3곡을 연주하는등 학년에 어울리는 수준 높은 연주를 선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체 단원들이 나와 “터”를 합창하므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물푸레합창단리틀렉트를 후원하고 있는 서울문화로타리의 박찬희 회장은 ‘맑은 어린이들의 합창 소리를 통해 희망을 느낄 수 있었고 어린이들의 밝은 모습에서 희망적인 대한민국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라고 하며 “우리 지구에 물푸레합창단과 같은 리틀렉트가 있는 것이 자랑스럽고 경희수 단장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고 전했다.

물푸레합창단 리틀렉트클럽 합창단은 이와 더불어 11월 2일(금)에 개최된 제5회 서울시 김장문화제 개회식에서 축하공연을 펼쳤으며, 11월 5일(월)에는 국제로타리 3650지구 문화예술위원회가 주관한 자선음악회 “사랑의 향기” 자선음악회에 참가했다. 물푸레합창단 리틀렉트클럽은 16명 단원들의 중창단이 참여하여 “가을들뜬” “말의 향기” 두곡을 연주했으며, 어린이 다운 천진스러움으로 많은 사랑을 독차지했다.

양진초 2학년 이다윤 양은 “저희들이 큰 돈은 없지만 제가 잘 할 수 있는 노래로 어려운 친구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좋다”고 좋아했다

광남초 3학년 황선정양의 어머니도 “어려서 재능봉사를 통해 내 이웃을 돌아 볼 수있는 기회가 정말 중요한 교육인데 이런 기회를 주신 3650지구의 로타리안들께 감사드립니다”며 “더불어 훌륭한 연주까지 감상 할 수 있는 힐링된 시간이었다”고 아이의 손을 잡고 뿌듯함을 전했다.



3650지구 로타랙트 연합 70명

SBS 및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함께 '초록우산 희망학교' 봉사활동



3650지구 로타랙트 연합 70여명의 회원들은 지난 2018년 11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SBS 방송국과 로타랙트의 협력단체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함께 주최한 '초록우산 희망학교' 프로그램 스텝 봉사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내 무연고 아동을 이해 후 인식개선'을 목적으로 그들을 돕기 위한 베이비 키트 제작, 슬럼아웃 토크박스를 통한 생활 간접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었습니다.

3650지구 로타랙트 회원들은 접수처 보조, 행사장 안내, 프로그램 부스 운영보조(베이비키트, 슬럼아웃 토크박스 등)의 역할을 맡으며 당일 행사에 참여한 일반 시민들이 원활하게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각 로타랙트클럽 회장들의 간단한 소감을 전해드립니다.

로타랙트 지구대표 정창화(중앙RAC)



11월 17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진행한 체험형식의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국내에 있는 무연고 아동들에 대한 설명과 아프리카 아이들의 삶에 대한 체험을 통해 국내외 아동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설명만 듣고 짧은 체험으로 끝난게 아니라 실제로 베이비 키트 제작을 해보면서 아동들을 돕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다방면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한양캠퍼로타랙트 대외부장 김준수



3650지구 로타랙트의 협력단체인 초록우산의 취지를 직원의 설명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무연고 아동에게 줄 선물을 직접 만들 수 있어서 더 뜻 깊은 행사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뜻깊은 활동을 하는 재단이로타랙트를 필요로 하며 함께 협력하고 싶어함으로로타랙트에 대한 애정이 더욱 생기는 시간이였다고다음에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참여할 것입니다.

서울산업기술대로타랙트 회장 김현동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어렵듯이 알고만 있던 3650지구 로타랙트와 협력단체로 맺어져 있는 초록 우산 어린이 재단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베이비 키트를 만들면서 바느질을 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생각만큼 예쁘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를 만들어 내는 과정이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고려대로타랙트 부회장 장혜윤



11월 17일에 초록우산 희망학교 봉사활동에 다녀왔습니다. 오전이고 추운 날씨에 진행된 봉사였지만 아이들을 위한 베이비키트도 만들고 아동복지역사와 아프리카의 불우한 상황 등을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화여대로타랙트 회장 이푸른



숙명 로타랙트는희망학교 봉사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빈민가의 아이들,또 우리나라의 소외된 아이들에 대해 깊이있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사람은 죽을때까지 달의 한 면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외면하지 않고, 조명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는데에 봉사를 실천하는 로타랙터로서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숙명로타랙트 회장 박민영

발달장애인 시설 강화도 우리마을 봉사활동에 다녀와서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깨달은 소중한 시간

글. 덕성여고 인터랙트 2학년 신수옥, 방윤지



덕성여고 인터랙트클럽 회원들은 지난 11월 20일 후원로타리클럽인 새한양로타리클럽 회원들과 함께 강화도 우리마을(발달장애인 시설)에 김장재료 후원을 위한 봉사활동에 함께 했다.

처음 우리마을을 둘러 보았을 때 느낀 점은 ‘정말 시설이 잘 되어있구나’ ‘장애인이 이곳에 살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마을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이렇게 느낀 나 자신을 곧 바로 반성하게 됐다.

장애인 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더 어렵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없으며, 우리가 살아갈 때 최소한의 것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항상 장애인은 어렵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왔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와 조금 다른 것이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시설을 돌아본 다음엔 앞으로 우리마을이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를 들었다.

학교를 졸업하면 갈 곳이 없는 장애인을 위해 졸업해서도 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 교육센터를 만들었고, 더 나아가 교육센터에서 조차 나갈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시설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하셨다. 그리고 장애인들의 안타까운 사정도 말씀해 주셨다.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아 최소한의 급여를 줄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으며, 실제로 공들여 전기 부품 1개를 만들었을 때 장애인들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7원 정도 밖에 돌아가지 않음에 한번 더 놀랐다. 다행히도 우리마을은 장애인을 통한 콩나물 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최저시급에 맞는 급여를 드릴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비교적 자립해서 잘 운영하는 편인 우리마을도 앞으로의 수입을 장담할 수 없다고 했다. 더 많은 지원과 관

심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덕성여고 인터랙트 회원들의 장기자랑 공연시간을 가졌다. 부족했지만 우리마을 장애인들이 좋아해주는 것을 보고 뿌듯함을 느꼈다.

공연 중간 신부님께서 노래를 불러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장애인분들이 앞으로 나아가 함께 노래 부르시고 춤을 추시는 장면이 펼쳐졌다. 그 모습을 보며 신부님이 시설의 장애인 분들에게 진심을 다하시고 즐거움과 행복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에 감동했다. 그분들은 정말 행복해보이셨다.

우리마을에 가서 많은 일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평소에 알지 못했던 장애인 복지에 대한 현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장애인분들과 짧게라도 소통하고 함께 즐길 수 있었던 봉사였다는 생각이 든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단원들과 함께 참여하고 싶고, 앞으로 덕성여고 인터랙트에 참여할 친구들에게도 다양한 봉사활동에 참여해보라고 권해주고 싶다.